축산업계 소식

'92축산물수급안정 및 축산사업추진 방향 공청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허신행) 주관으로 열린 '92축산물수급안정 및 축산사업추진 방향 공청회가 지난 12월6일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91축산사업계획시책평가 및 '92축산시책 추진방향에 있어서 축산물(소, 돼지, 닭) 기타농산물들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개방화 물결과 인력난, 분뇨처리문제 등 축산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심화되어 가고 축산기가재의 부가세 문제를 위시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현 축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청회가 마련되었다.

'91축산시책 평가에 있어서 UR 및 수입 개방에 대응하는 총체적인 대비책이 미흡했으며 축산업구조개선, 유통개선, 축산폐수처리 지원사업이 불충분 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92축산시책 추진 방향을 보면,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의 본격추진, 축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 가축개량사업의 지속적추진과 기술개발보급,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 방안의 중점 추진, 축산단체 및 연구기관의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날 토론에서 본회 신홍종 회장은 계분의자원화, 사료의 자급화문제, 특히 양계산물의 등락폭이 컸다고 지적하고 양계전문연구소를 설치하여 보다 폭넓게 양계산업이 발전하도록 정부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양계생산물에 있어서의 수요·공급을 강조하였으며, 현재 생산에 있어서 5%정도 증가하여도 도계할 수 있는 도계장이 없는점 가축위생 문제등을 강조하였다.

양계산물을 수출장려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품질의 향상, 유해물질 방지, 생산비 절감, 보다 다양한 가공제품개발 등에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이 강조되었다.

농지의 보전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부는 '92년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농지의 보전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10일 입법예고 했다.

동법에 따르면 '92년도부터 농지를 택지나 공장용지로 전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40%를 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 가격의 40%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과 간이양어장 등 간이농어업이용시설은 3년이내에서 일시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용부담의 납입고지 및 징수에 관한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여 농지조성비와 함께 징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토록 하였다.

축산단지 대상농가 선정자격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정부는 축산단지 대상농가 선정자격에 대하여 축산단지조성사업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농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농가선정은 사업주체인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와같이 축산단지 대상농가의 범위를 밝힌것은 최근 단지조성을 둘러싼 주변주민들의 진정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양계시범사육단지 조성키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평택에 대규모 양계시범사육단지가 조성된다.

그동안 토지관계법과 주민반발에 부딪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축산단지조성사업이 경기도를 비롯한 평택군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팽성읍 대사리 산1-1번지 지역 1만4천여평의 부지에 농가당 3만수씩 30만수 규모로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이다. 평택군에 의하면 이번 양계단지조성사업은 수입개방에 대비 축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축사시설 부지난 해소와 전업축산농가 시범육성, 사양관리공동체계 구축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총 사업비 28억5천8백만원을 책정, 올('92) 10월까지 단지조성사업을 끝낼 방침이다.

한편 이번 평택양계단지조성사업 결정은 인력난, 계분처리, 저생산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계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주민반발에 부딪쳐 제자리걸음상태에 놓여있는 축산단지조성사업 추진작업에 선례로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계분처리공장 설치 검토

경기도는 계분의 하천유입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계분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분비료공장 설치를 건설부에 건의 했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계분비료공장 설치는 환경보전 및 낙후지역 소득증대 차원에서 허용이 바람직하며 설치가 시급한 포천, 이천 등 개발유보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대단위 양계단지에 설치코자 하는 공장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 단서 제1호 나목 및 제17조 제2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해 지역특화협동공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축협, 생산·유통부문에 역점

축협중앙회는 지난 11월29일 전국회원조합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생산기반조성, 유통부문의 투자확대,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특히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축협이 직접 소비지에 참여하는 종합판매장 개설과 육가공공장건설 등에 7백4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신규육성하는 한편 올해보다 2천3백억원이 늘어난 8천9백억원의 축산자금을 양축농가에 공급키로 했다.

또한 건의문에서는 축산업에 대한 선별적이며

집중적인 투자만이 UR이후의 우리농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조합장들은 이어 주요축산물의 가격안정대제의 법제화, 집유일원화 및 검사공영화를 위한 낙농진흥법 및 축산법의 조속한 개정, 무허가축사의 양성화,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와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과 관세면제, 한국마사회의 체육청소년부 이관 재검토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축협, 폐수처리시설 지원

축협중앙회는 3백89억9천4백만원의 자금을 확보, 가축배설물의 효율적처리를 위한 시설개발 및 시설설치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가축배설물 간이정화조시설 1만1천500개소, 정화시설 1천개소, 계분비료공장 3개소, 축분발효시설 3개소 가축분뇨저장탱크 30개소를 설치하는데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가축배설물처리 관련 슬라이드를 제작·보급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키위한 토양살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며 전문연구기관 등에 가축배설처리에 관한 연구를 의뢰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원 독립성유지 위해 신분보장

농림수산부는 도계장 및 집유장에서 근무하는 자체검사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르면 자체검사원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검사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승인기관에 신청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였으며, 작업장의 시설별 최소면적 신설, 축산물 검사기준 강화, 작업장의 허가기간 종료시 농림수산부장관의 협의를 받도록하여 영세 노후한 작업장의 통폐합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했다.

농축산물 무역체제 대폭 보강

농림수산부는 농축산물시장개방의 확대로 인한 관련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농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관세제도 및 검역체제 등 무역체제를 대폭 보강하는 한편 농축산물수출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따라 무분별한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와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유가공협, 글짓기대회시상식

한국유가공협회(회장 전응진)가 주최하고 농림수산부가 후원한 제7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대회 입상자 시상식이 지난 12월9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업계 및 각계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국민건강과 제2세 국민의 체육향상을 위한 필수식품인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실생활에서의 체험을 글로 표현하게 함으로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켜 소비확대를 통한 낙농 및 유가공업의 병진적 발전을 도모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작문실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했다.

총 응모작품 1,531편중에 엄정한 심사결과(심사위원 윤석중회장외 2명) 영광의 최우수상에는 박영선(전북 순창군 쌍치면 시산국교 4-1반)어린이가 차지하였으며 그외에도 우수상 2명, 가작 5명,

입선 10명, 장려상 30명 총 48명이 당선 되었다.

'92축산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공청회 개최

농림수산부는 지난 12월6일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92축산물 수급안정 및 축산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92년도 축산시책을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의 구조개선, 중핵 전업양축농가 육성, 축사시설개선 및 폐수처리시설 지원, 축산단지조성확대, 계열화사업,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계획임을 밝혔다.

한국축산기계공업협회 설립 창립총회 회장에 양창옥사장 선임

한국축산업의 발전과 축산기자재의 기술개발, 회원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권익보장, 건전한 기업윤리확립 등을 목적으로하는 한국축산기계공업협회가 12월5일 발족되었다.

그동안 원자재의 원가상승에 의한 자금압박, 업체간의 과열경쟁, 업체의 기자재 사후관리 허술, 유사상품의 범람 등 축산기자재 부문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개방화시대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구심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계공업협회 회장에는 다나축산의 양창옥사장이 양계부분에는 태영기계 변동하사장이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학계와 경실련회원 등 쌀시장 개방 반대
—미대사관 앞에서—

쌀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2월5일 종로구에 있는 미대사관 앞에서 고재군 서울대 농대학장 등 「쌀 개방반대 교수단」과 「경실련」소속회원 40여명이 모여 No Rice Import라는 피켓을 가슴에달고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국무총리실과 미대사관에 「쌀개방반대 및 농업희생정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호소문」을 채택하고 국무총리 및 미대사관에 전달했으며 미국의 슈퍼301조의 폐기, 쌀시장개방후 한국농촌의 심각한 현실정 등을 전달했다.

농림수산부
인사이동 단행

농림수산부는 12월28일부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조사담당관 성환오 △통상협력 1 담당관 김재수 △통상협력 2 담당관 김영욱 △농산통계담당관 곽용도 △유통경제담당관 이윤무 △행정관리담당관 김창환 △농업구조정책과장 안종운 △농지관리과장 김선오 △농촌소득과장 강동제 △농업금융과장 이수범 △자재과장 정두표 △개발기획과장 백현기 △시장과장 소만호 △축정과장 이헌목 △축산경영과장 김경남 △축산물유통과장 노경상 △초지사료과 이인형 △양곡조사과장 김영갑 △양곡관리과장 정경완 △국립농산물검사소 서무과장 지의열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서무과장 이석민 △국립농업기계검사과장 최병열 △국립종자공급소보급과장 김관태